



인물탐방 들꽃연구가 김종하씨

들꽃사랑이 곧 나라사랑입니다

야생화 연구 15년... 우리꽃 보급 앞장
등근잎쟁의비름 등 특정보호식물 보존
들꽃정원 '초애원' 4월20일부터 개방

대면5동 뚝골3길 33호에 가면 김 종화(55)·김혜은(50)씨 부부가 사는 집의 들꽃정원 '초애원'이 있다.

이곳에는 김씨 부부가 1996년부터 키우기 시작한 들꽃 1,000여 종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우리나라 자생 들꽃으로 되어 있다. 정원을 들어서니 소박한 야생화 마을에 온 듯하다. 가장 먼저 연꽃 화가 노란 꽃잎을 펴며 눈마중을 하고 태풍에 넘어져 자연스레 만들어진 오죽 아치가 손님을 반긴다. 그 위로 홍오동이 붉은인동 덩굴과 함께 고개를 내밀고, 백등과 밀꿀나무가 잔가지를 흔든다.

목련과 동백은 이미 꽃이 터졌고 밖에서 겨울을 보낸 애기수선화가 기특하게도 작은 체구로 튼실한 꽃송이를 내뿜었다. 봄꽃들과 눈을 맞추니 신춘의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든다.

대문 왼쪽에는 벤치와 이끼정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합무리, 허브를 모아놓은 큰 화분, 갖가지 들꽃이 자란다. 명이 싹과 금낭화 싹이 영토를 넓히고 매발톱과 동강할미꽃이

삼동을 견뎌내고있고 로제트 상태로 자란 냉이와 초롱꽃도 꽃대를 피워 올랐다. 거실 앞 테라스의 돌꽃 속에는 동이나들이 꽃을 머금었고 작은 화분에는 대문자초, 바늘꽃, 누운주름 잎, 용담 등이 살아 숨 쉰다.

갯국은 천연기념물, 풍지초는 38도 이북에서 자생하는 귀한 식물이며 등근잎쟁의비름은 멸종위기의 특정보호식물이다. 갯까지수염, 사위질빵, 천사의나팔, 홀아비꽃대, 갯쟁이풀 등의 재미난 이름도 있다. 창가에서 햇빛을 받고 서는 백향나무는 주인장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씨앗의 결실이라고 한다. 현관 입구에는 천일홍과 은방울꽃이 거꾸로 매달린 채 앞전하고 거실에는 자스민과 거미바위솔, 상록너죽고사리, 베들레헴의별이 피난을 와서 월동나기를 하고 있었다.

자생식물 연구자인 초애원지기 김종하씨는 현재 용호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부산시조시인협회 신인상으로 등단하였고, 시집 '흰금낭화' 같은 그대(2005)'를 출간하는



들꽃연구가 김종화·김혜은 부부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들꽃정원 '초애원'에서 꽃을 가꾸며 즐거워 표정을 짓고 있다.

등 왕성한 문단활동도 겸하고 있다. 김씨가 이렇게 들꽃과 동거하게 된 계기는 약 15년 전 문헌동에 살던 허씨 성을 가진 들꽃 마니아 세 자매를 만난 이후 부터이다. 당시 허 자매들은 네팔에서 씨앗을 채집해올 정도로 들꽃 가꾸기에 열정을 쏟고 있었는데 그는 이 집을 지나칠 때면 걸음을 멈추고 마당 가득 핀 들꽃에 눈길을 쏟았다고 한다.

김씨는 "그때 처음으로 본 회귀식물에 '날개하늘나리'는 충격이었죠. 그동안 고개 숙인 참나리만 보왔던 터라 하늘 바라보기를 하는 나리꽃의 모

습은 신비에 가까웠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김씨는 세 자매에게 회귀식물을 일괄 분양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들꽃 가꾸기를 하게 되었다. 이후 세 자매가 이사를 간 후 그곳에 남아있던 들꽃까지 옮겨오게 되자 작은 정원의 필요성을 느껴 현재의 '초애원'으로 이사를 한 것이다.

200㎡ 면적의 풀이 있는 단층 건물에 이사를 하는 날, 10대 분의 트럭에 화분을 잔뜩 싣고 와서 주위를 놀라게 한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는 가을이라 대부분의 들꽃은 진 상태

이며 식물들이 겨울을 견디기 위해 기운을 뿌리에 모은 로제트 상태인 지라 수백 개의 빈(?) 화분을 집안에 들여놓는 그가 이상해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또 10년 전부터 우리꽃 보급 운동 일환으로 무료분양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가나안 농학교, 남상초등학교, 해림초등학교, 경북과학대, 천안고신대 등에 무료 분양을 하고 손수 정원까지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우리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독립운동가 집안인 가수 윤형주가 '나라사랑'을 강조하듯 나에게도 우리 들꽃이 '나라사랑'이며 '우리 일'이다"라고 단호히 대답한다. 이어 "기회가 있다면 개인 전시회를 하고 싶고 '자생식물원'을 세워 우리꽃을 알리고 보급하며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3월은 야생화에 있어 이른 개화기와 들꽃정원은 아직 고요하다. 그러나 영두꽃과 창포 등이 꽃을 물고 있으니 곧 향기를 퍼뜨릴 것이고 미스캄파일라이 눈을 뜨면 지천에 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릴것이다.

이곳 '초애원'은 해마다 개화기를 맞아 정원을 개방하고 있는데 올해는 4월20일부터 열흘간 손님을 맞을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 학생중심 대학 가꾸겠다

경성대 김대성 총장 취임

김대성 총장이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경성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김대성 총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선 경성대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 제10대 총장직을 시작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 간 통합과 화합을 모색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 개편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3가지 대학 운영 방침에 대해 밝혔다.

김 총장은 그 첫 번째로 "학생중심 대학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기존 대학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전문성을 가진 중견실무형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중심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수법 개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과 또는 전공 평가를 하고 우수한 학과 또는 전공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성 총장은 마지막으로 '캠퍼스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자연



스럽게 하나되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쓰겠다"며 "배수지 인근에 경성대 캠퍼스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캠퍼스 속의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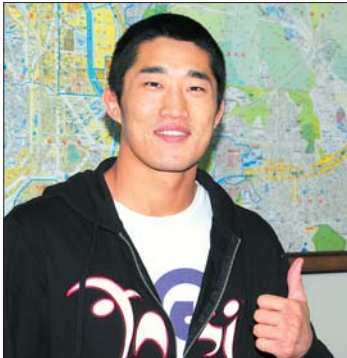
김대성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 간에 화합된 모습으로 부산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라는 말로 취임사를 마쳤다.

김대성 총장은 지난달 18일 재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0대 총장으로 선임됐으며 지난 93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 제5·6·7대 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2년부터는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옥련 기자

“저도 남구민입니다”

한인 최초 UFC 진출한
김동현 선수



한국을 대표하는 UFC(미국 격투기 대회)의 절대강자로 성장하고 있는 김동현(27·부산팀 M.A.D)선수가 남구에 새 동지를 틀고 세계 챔피언을 향한 꿈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월 문현3동 삼성힐타워로 이사 온 김 선수는 "소속팀이 부산에 자리를 잡고 있어 고향인 대전을 떠나 문현동에 속소를 정하게 됐다"며 "시원한 바다와 화끈한 팬들이 있는 부산 문현동과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동현 선수는 지난 2004년 용인대 유도학과 재학 중에 국내 아마추어 리그를 통해 데뷔했다 곧

바로 프로로 전향한 그는 이후 10년 9승 1무리는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며 국내 격투기 동급 최강자로 인식돼 왔다.

일본 무대에서 그의 활약은 눈부셨다. 2006년 5월 일본 'CMA 페스티벌 2006'에서 타나 무라 미츠노리에 리어네이킥트 초

크(뒤에서 상대 목을 조르는 기술)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특히 2007년 8월에 열린 일본 격투기 대회 DEEP에서 웰터급 챔피언인 하세가와 히데히코를 파운딩 펀치로 TKO승을 거두면서 최고의 기량을 입증했다. 김동현 선수는 유도를 기초로 주짓수 기술을 익혀 그레플링 실력은 물론 타격 실력까지 겸비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동체급 선수들에 비해 긴 리치를 가진 선수답게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타격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UFC에 진출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김 선수는 최근 UFC와 재계약을 맺고 앞으로 2년간 4경기 재계약을 체결했다. 김 선수는 경기에서 이길 경우 최소 5만달러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문현3동 삼성힐타워 레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경미 대표의 제보로 기사화됐습니다.

우리문화 우수성 널리 알릴 터

평생수집 유물

2천점 기증한 조만규씨



평생을 수집해 온 유물 2,000여 점을 아낌없이 사회에 내놓은 퇴직 사업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조만규(76·해운대구 우동)씨는 자신이 소장해 오던 유물 수천점을 부산·경남지역 박물관과 학교 등에 기증해 오고 있다.

조만규씨는 지난달 18일 부산박물관에 고려도기 등 73점의 유물을 기증하는 등 지금까지 남구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수백여 점을 기증해 우수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조만규씨가 처음 유물 수집에 나선 건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전. 우연히 청자원을 구입하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전국의 고미술상을 돌며 가야·고려·조선시대 유물 2,500여 점을 모았다.

개인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졌다. 하지만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 몇년 전부터 거제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경남지역 24곳에 2천여 점을 기증했다.

그 공로로 조만규씨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나머지 500여 점도 계속해서 기증할 예정이다.

유영희 기자

우주주의 작품 맛보세요

그림 그리는 공무원

남구청 배찬노씨



대면3동 한국아트미술관에 가면 우주주의를 만날 수 있다.

화우회 3인전이 열리고 있는 이곳에서는 배찬노(48·남구청 교통행정과)씨의 우주주의를 테마로 하는 작품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낯설게 들리는 우주주의는 배씨가 만든 미술의 사조다. 좁고 한정된 땅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넓은 우주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두자는 생 각은 배씨의 끝없는 창작의 배경이 되었다. 노란 황금색의 바탕이 인상적인 작품은 현재 금융위기와 작품을 접목시킨 작품이다. 넓은 우주를 표현한 문양으로 별들을 표현한 작품 또한 우주를 연상하게 한다. '우주주의'는 배씨의 창작세계의 시작이고 현재진행형이다.

알아일문학과 출신의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는 아주 오래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대학원 진학을 하고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동인 활동을 하고부터다. 벌써 3번의 개인전과 여러 차례의 동인전을 열었다. 배씨는 교통난측업무로 바쁜 평일의 시간보다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 612-3400

류진아 기자

선거법 Q&A

Q.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등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돈을 받은 벌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A.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3조에서는 이러한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격의 □□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발퀴즈: 위의 밑줄친 답변내용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① 50 ② 70

▶정답은 4월호에 있습니다. ▶출처:가: 2009. 4. 10까지

▶응모방법

• 이메일 (hammer666@nec.go.kr) • 우편엽서 (608-061 남구 우양중앙길 104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응모지는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상 품: USB 1개씩(총 3명)

남 구 선 기 관 리 위 원 회

타이어 전문매장 이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남영종합타이어에 오시면...

- ◆ 차량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타이어로...
- ◆ 전문가와 상담 후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타이어로...
- ◆ 타이어는 국내 1위, 세계 1위 검증된 제품만 취급...
- ◆ 타이어 전문 (첨단 장비·인테리어·보유)
- ◆ 타이어 전문 (초정밀 휠 밸런싱기 보유)
- ◆ 사후관리 A/S는 신속, 정확, 감동하실 겁니다.
- ◆ 이제 타이어 전문점에서 **가격 높은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타이어·휠 전문매장

본 매장 실제 전경사진

본 매장 실제 전경사진

본 매장 실제 전경사진

타이어 초특가 판매
(전차중·수입차량 포함)

금오타이어 TIRE
세계최고의 브랜드(보타시온)

BRIDGESTONE
세계최고의 브랜드(금호타이어)

(주)남영종합타이어
www.nytire.co.kr

문의: (051) 623-1155
평일 10:00~19:00, 주말 10:00~18:00

연경무류업소

부산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중앙요양보호사교육원

무시험입니다! 나이, 학력 제한없습니다! 평생직업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면서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될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직업을 가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중앙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부산무로취업지원센터와 나루복지센터와 연계되어 교육 이수 후 100%취업이 가능합니다.
신규1급, 간호사반, 사회복지사반 수시모집합니다.

전화상담 643-4009

지하철: 2호선 문현역 3번 출구

★ 기존의 간병인, 간호사, 케어복지사, 바 스: 24, 51번 삼성아파트 앞 하차, 25, 26, 34, 86번 대정중 하차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봉사요원은 반드시 138, 1001, 101, 27, 108, 41, 139번 문현역 하차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명세화 되었습니다. 전포동 방향 삼성힐타워 맞은편 원방아트빌딩 4층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여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5:50~7:10, 7:20~8:4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면5동 기아자동차 옆)

컴퓨터 교육 개강: 2009년 4월 6일

특강 ① 매주 화요일~금요일 10:00~11:50 수강료: 6만원	초보자의 마우스 사용 확실하게 익히기 (아래 작업을 통해서 마우스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힙니다.) 프로그램 이해하기: 윈도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창(화면) 이해하기, 키보드 이해하기, 키보드와 마우스의 함께 사용 폴더 및 파일 이해하기, 디스크관리 이해하기
특강 ② 매주 화요일~금요일 12:10~13:00 수강료: 6만원	컴퓨터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인터넷과 이메일: 즐겨찾기, 사진·동영상 올리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주고받기 사진(그림): 편집하기, 사진과 음악으로 동영상 만들기 파일: 압축하고 압축풀기, 화면 캡처하기, 폴더 관리하기 CD, USB, 디가, 캠코더 등의 자료를 내 컴퓨터로, CD에 자료 굽기
신재장에만 직업훈련	취업 또는 자영업에 하고 있지 않은 60세 미만의 제1급~제4급 장애인으로부터 직업취득 계획을 수립한자(훈련비는 근로복지공단 부담, 훈련생에 수당지급)
신청기간: 장애인복지관 신청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훈련기간: 19일2시간(3개월)	
예셀 및 파워포인트 실무 CAD 기초부터~	매주: 화, 목요일(4주) 매주: 월, 수, 금요일(8주)
본원에서는 아래의 자격증 과정을 단기로 매월 개설하고 있습니다. CAD,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실기, 워드1급 실기, 사무자동화 실기, MOS master	
부경정보처리학원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옆 : 베이직하우스 8층	

고려요양보호사교육원

고려노인복지센터

♥ 어르신들 가족처럼 모셔드립니다 ♥

**국가자격 1개월 교육 1급자격
교육생 모집 속성반 수시접수**

제공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교육시간 : 09:00~17:20
- 교육대상 : **학력·나이 제한없음**
- 교육장사 : 전일교수 및 외래교수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분

**남·여 누구나 학력·나이제한 없는
국가자격증 취득!!**

**장기요양 판정을
원하시는 분 안내하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동 554-19 3, 4층
T. 621-5619, 612-8876 F. 612-8872 P. 016-9630-5619
용호동 성모병원앞여차(131번구중정) 24, 27, 22, 131, 20, 39번 버스